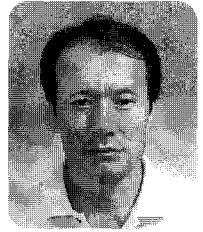


질병 방역활동 및 문제점 · 애로점

- 경기 이천시부 -



정종국 이천시부장

희망에 부풀은 계절의 여왕 5월 3일.

우리 축산인들은 청천벽력같은 뉴스에 아연실색했다. 몇 년전 대만을 휩쓸고 간 대만의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모든 업종을 포기시킨 구제역이 우리 나라에도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축산인들은 지레 겁부터 먹고 이젠 모두 축산을 포기해야 할 걱정에 상심하였다.

돼지에서의 발병은 타 우제류 가축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3,000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 나라가 대만처럼 변하는데 많은 시일이 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앉아서 기다릴 순 없었다. 즉시 행정지원이 조치되었고 시청 축산과에 상황실이 설치되고, 군·경찰·시청 공무원 등 각 농민단체 등에서 조별 짜 초소 근무를 시작하여 가축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였다. 모두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해냈다.

불시 야간점검 순찰을 하여 초소근무자의 근무 의욕을 북돋웠다. 농가에서도 철저한 가축 이동을 근절하여 어려움이 따르지만 협조하여 다같이 노력하였다.

1일 평균 이천시 지역내의 초소근무에 사용되는 소독약 값이 1,500만원 정도이다. 3개월이면 이천시 1년 예비비가 동이 났을 정도이다. 인근 안성시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하던 수의사가 사고로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

천에서도 초소에서 차량으로 여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즉시 교통통제 기구를 증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초소운영으로 전환하였다.

안성, 용인 원발생지에서 500m이내는 모두 살처분하고(이번 기간 중 살처분 두수 약 30여만두) 3km이내는 이동제한, 10km이내는 경계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차츰차츰 발생지역이 이천 쪽으로 다가오에 따라 이천을 태풍전야와 같은 정신적 위축으로 모두가 포기 상황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순 없다. 그 때의 분위기는 이천에서도 발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차라리 백신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구제역 백신은 타 질병의 백신처럼 효과가 완벽하지 않으며, 구제역 접종후의 사후관리가 복잡하므로 전세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농림부에서도 백신 사용을 긍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며 백신보다는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였다. 농가에서는 의심축을 즉시 기관에 신고하고, 현장에 수의사 파견으로 감별진단을 하여 양성반응일 때 12시간 내로 살처분에 돌입하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며 백신보다는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였다. 농가에서는 의심축을 즉시 기관에 신고하고, 현장에 수의사 파견으로 감별진단을 하여 양성반응일 때 12시간 내로 살처분에 돌입하

였다. 많은 군인들이 명령에 의해 작업하는 모습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그것 이상이었다.

이천 양돈협회는 실시간 구제역 상황을 농가에 문자메세지로 전달하고 계몽지도 하였다. 지쳐버린 방역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돼지 10마리를 도축가공하여 격려, 위문하기도 하였다.

발생 2개월여가 지나자 서서히 발생빈도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양상을 느낄 수 있었다. 구제역 관련 모든 기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천에서는 최후의 위험지역으로 대죽리가 해당되었다. 농림부에서는 대죽리 30,000여두를 살처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이천 축산과 상황실에서는 책임지고 방역을 할테니 살처분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하여 살처분 보류로 검역원의 허가를 받아 방역으로 정책전환이 되었다. 다행히 대죽리 30,000여두는 살처분을 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구제역에 대한 실제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분적 종결선언 통보가 내려왔다.

올해 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방역계획과 법령 재정비로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에 과학적, 경제적,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구제역 전문가 몇 분이 방한하여 한국의 구제역 상황을 살펴보고는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구제역을 잘 통제한 나라는 처음이라고 경탄하며 놀라워했다.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가졌지만, 구제역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자

부한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그 어려운 구제역을 슬기롭게 이겨낸 선진 축산국가인 우리 나라가 금번 김포인근과 이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한 번으로 수출포기란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다시 말해 선진 양돈국이 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접종중단에 동의하고 희망을 갖고 결정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너무 경솔했다느니, 우리 주체에... 외국에서는 10년 걸려 했다는니, 재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자금여력이 없으니 사서(수입) 먹자는 논리로 청정국을 포기한다면 우리 나라는 질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우리 양돈산업은 사양의 길로 간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게임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한다. 적절한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키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우리 나라는 구제역 청정선언을 한 상태이며, 지금으로부터 7개월 후면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계당국과 우리 양돈농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이번 봄철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니 최선을 다해 질병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전국의 약 12% 정도는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을 하면서 청정국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점을 우리는 유의깊게 참고하면서 돼지콜레라가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회일비 하지 않고, 이 정도는

각오했다는 마음으로 싸워나갈 것을 전국 양돈농가와 정책 당국자에게 호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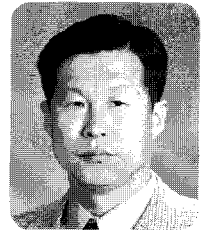
이 지면을 빌어 지금까지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에 앞장서신 관련기관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질병 방역으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하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더욱 환경을 중요시하고 청정한 먹거리 생산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질병 방역활동 및 문제점 · 애로점

- 경기 안성지부 -



이정찬 안성지부장

1. 현안사항

가. 살처분 보상 기준 애매

나. 이동 제한 지역 농가 애로

- 수매 지연, 분뇨처리 곤란

- 도태돈 처리 지연

※살처분 농가 애로만큼 이동 제한 농가에도 애로가 많으나 살처분 농가에 가려지는 경향

다. 상황실 및 살처분 현장 출입 통제 미약

- 관계자, 보도진 등 필요 이상의 낭비 요인 많음

라. 발생 신고자(농장)에 대한 보안 유지 미비 및 매도 경향

마. 농가 의식-차단, 정기적인 소독 개념 미흡

2. 대책 및 개선점

가. 살처분 보상 기준안 협의 필요

나. 신속한 수매 계획 수립(자돈, 도태돈) 필요 및 분뇨 처리의 예외성 확보 필요

다. 현장에 가장 익숙하고 교섭력이 있는 기관으로 권한 이양 및 책임 부여

라. 정확한 근거와 조사에 의하여 공식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가가 매도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됨

마. 교육, 홍보 외에 개별 농장에 대한 방역 의식 고취 및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질병 방역활동 및 문제점 · 애로점

- 충북 진천지부 -



전홍우 진천지부장

구제역이란 질병에 대해 우리 축산업계에
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웃 나라 대만에
서 발생하였을 때부터인 것 같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
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
장할 듯 싶다. 그렇듯 남의 나라 이야기가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이어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서 발생되었다.

이미 발생한 후에는 최단시일내에 종식시
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천지역에서 발생
했을 때의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문제점과 대책

가. 지나친 언론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
언론기관에서 과장된 보도나 혐오장면을 방영
하거나 사진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
며 하는데 이것은 업계 이외의 국민들은 구제
역이나 돼지콜레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
기 때문에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소비가 급격
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각 언론사의 지나
친 취재 경쟁으로 무단 방문하여 외부로의 전
파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통제초소가 증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비용의 증가까지 초

래되기 때문이다.

나. 살처분에 따른 농가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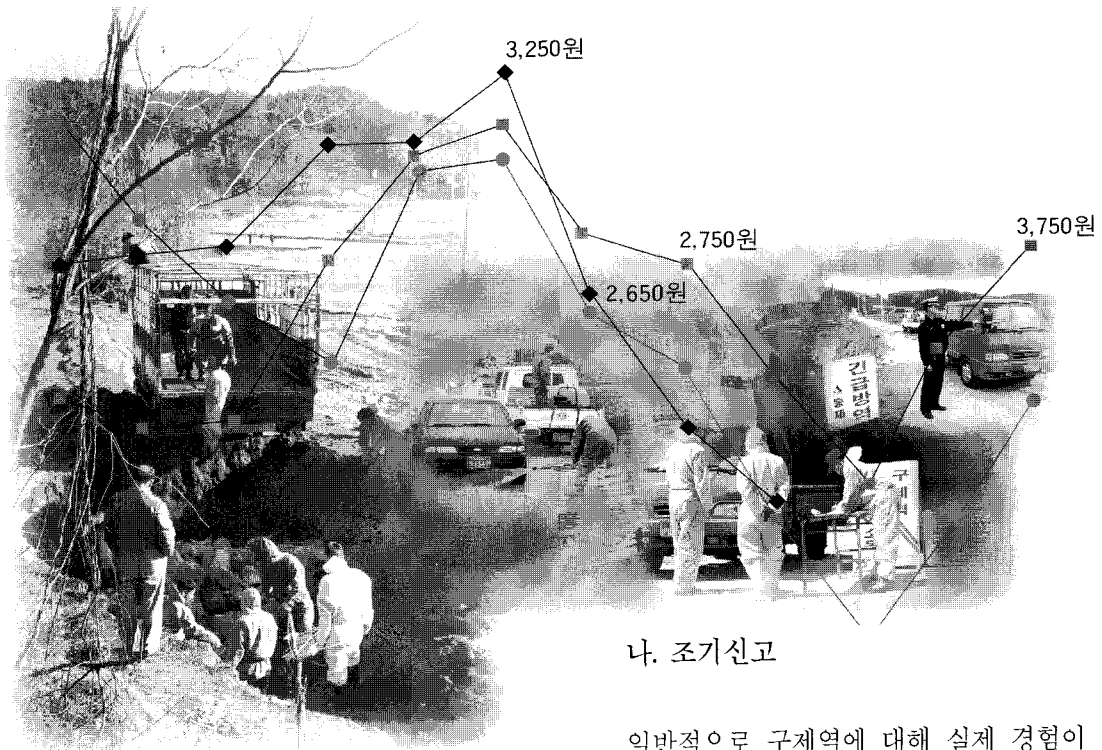
살처분에 따른 농가 반발이 심할 경우 살처
분계획이 연기되거나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질병과 관계되
는 양축가들에게 공문이나 교육을 통하여 살
처분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만일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살처
분하는 것이 조기근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위험지역내의 사료 공급

위험지역, 경계지역으로 묶일 때 위험지역
내에는 사료차량이나 기타 약품, 모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므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데 협회와 행정부서가 협의, 벌크차를 고정 배
치하여 사료를 운반하도록 해야 하며 지대포
사료는 각 농가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운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차단 방역

농장주 또는 농장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목
적으로 이웃 농가들과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해



나. 조기신고

일반적으로 구제역에 대해 실제 경험이 없는 우리 양축가들로서는 구제역이 발병하였을 때 다른 질병으로 생각하고 자가치료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다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의심축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축가 스스로 이러한 질병으로 의심될 경우 일단 신고부터 하고 가축의 이동이나 판매 등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다. 우리의 각오

어떠한 질병의 피해가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나라 전체의 피해로 예상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소독설비 설치, 소독실시,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보관, 또한 가축이동증명제의 실시와 별개로 우리는 소독을 물론 떨어뜨리 및 출처가 불분명한 돼지 등은 구매나 입식을 금지하고 차단방역에 대한 조치를 꼭 해야 할 것이다.

야 한다. 또한 매물장에 투입되었던 장비나 인력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잠복기 동안 이웃 농장 또는 농장주변에 접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해결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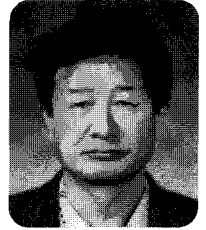
가. 공동체의식과 방역의식

우리가 축산업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나 하나만 방역을 잘해서 구제역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업계도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농장의 출입과 관련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기본적인 방역의식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관련업체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질병 방역활동 및 문제점 · 애로점

- 경기 평택지부 -



김용진 평택지부장

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이상하지만 본인이 느낀 점은 좀 다르다. 구제역이 발생하여 평택 양돈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농장의 소독 및 차량소독, 차단방역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양돈협회 회원들이 나서서 큰 도로의 차량소독 실시 및 위험지역, 경계지역의 이동초소 검문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실했다고들 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당번을 썼다가 오히려 구제역 바이러스를 묻혀 들어오면 농장이 더 위험하다 하여 농장 밖에 나가는 것을 더 자제하도록 하였다.

우리 양돈인들보다는 시청 축산직 공무원들의 고생이 심했다. 살처분 농장의 농장주가 시청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책상 및 컴퓨터가 파손되고 공무원이 다치는 불상사도 생겼다. 농장을 못하게 하려고 멀쩡한 돼지를 살처분시키려 한다는 오해와 술김에 흥분이 되었던 탓이었지만, 공무원이 다치고 난 후에는 축산직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까지 이동초소 당번을 서기 위해 동원시키다보니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밤 3시에 당번 순번인데 가야 하나? 위치가 어디인가? 전화를 밤 1시, 2시에 걸어도 하고, 농장에 살처분하기 위해 들어가면 군인들이 돼지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다들 줄을 몰라 축산직원 몇 명이 밤새워 몰아댔던가, 집에는 일주일, 이주일씩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산계 사무실에서 밤새워 상황

근무를 서야했다고 한다.

또 살처분지역에서는 구제역이 5월에 발생하여 논에 모내기작업 및 밭에 작물심는 것도 못하게 하며 반경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 주민들도 소독약을 뒤집어 쓰고 통제를 받다보니 살처분 매립으로 인해 동네 지하수가 오염된다며 돼지 채입식을 반대하며 으름장도 놓고 주민들이 농성까지 했다고 하니...

그런데 또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한다면 살처분을 하여 보상비 받아서 사료값 값고 부채도 청산하고 나면 돼지 입식할 자금이 부족한 농장도 있어 위기의식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또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내에서는 축산분뇨가 넘쳐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어 너무 힘들었고, 돼지출하도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나야 수매시작이 되니 그 때까지 돈방을 비울 수가 없어 분만할 모돈이 분만사에 와야 하는데 칸이 없으니 돈방을 비우기 위해 자돈을 수매(농장에 살처분 매립)해야 하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러고 보니 다시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우리의 재산(돼지) 및 우리의 이웃과 축산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안가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양돈**